

丁亥始譜發刊以來 여러 차례의 大同譜와 많은 派譜가 刊行되었으나 今此 辛酉大同譜 처럼 많은 宗族이 參與한바는 吾宗 族譜 刊行史上 初有의 一大快事로서 族親諸位와 더불어 慶賀且祝하는 바입니다.

惟吾 彥陽金氏는 新羅金氏王族의 後裔로서 新羅 第五十六代 敬順王의 第七子 鐸封 彥陽君을 貫祖로 하여 連綿 今日에 이르기까지 많은 愛國忠臣 烈士를 輩出한 自他가 共認하는 名實 共히 東邦의 華族이요 三韓의 巨族입니다.

二十四代祖 威烈公 就礪께서는 高麗高宗朝 때 太子 太師(傅) 門下待中으로서 北方의 契丹兵이 數次에 걸친 邊境侵攻을 擊退制壓하신 麗朝名將일 뿐 아니라 名宰相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歷史속의 偉人으로서 온 겨레의 龜鑑이 되시고 있는바 高宗廟와 崇義殿 등에 여러 君王과 더불어 至於今配享되시니 우리子孫들의 자랑스러운 偉大한 先祖입니다. 其後 代 先祖께서도 出將入相한 분들이 많았읍니다 마는 特히 壬辰倭侵을 當하여 文烈公 千鎰께서는 義兵大將으로서 倡義使를 除授받아 救國一念으로 到處에서 倭敵을 擊退하시여 赫赫한 功勳을 세웠으나 晉州城攻防戰에서 最後까지 死守하다가 敵過不勢로 아드님 象乾과 諸將卒과 더불어 壯烈한 最後를 마치셨고 不啻라 象乾配位께서는 夫君의 悲報를 받으시와 痛憤한 나머지 自決을 하셨으니 當代의 三綱의 門閥이라고 온누리에 其名聲이 藉藉하였읍니

다. 나라에서는 壬亂一等功臣으로서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를 象乾께서도 左承旨에 追贈받으시와 父子共히 晉州彰烈祠와 羅州旌烈祠를 立祠하여 奉享하고 있습니다. 또 丁卯胡亂時 安州牧使兼防禦使 諱浚 諡壯武公 父子의 爲國忠誠한 最後와 三綱旌閭의 賜額、李朝末期 國政의 不正과 非理를 糾彈하기 爲하여 東學革命을 蜂起主導한 德明將軍의 愛國忠誠心等 한결같이 國家的으로 國政이 和平할때는 賢明한 宰相으로서 卓越한 經世家로서 高名한 學者로서 그리고 國家民族에 忠誠하는 有德仁慈한 百姓으로서 또 나라가 患難을 겪는 有事時에는 生命을 草介같이 여기는 勇敢한 將帥로서 或은 愛國烈士로서 愛國愛族하고、滅私奉公하는 正直 훌륭한 분들이였읍니다. 우리는 이같이 자랑스럽고、슬기로운 先祖의 後裔들이며 至今도 우리의 脈膊속에는 그 분들의 피와 열이 脈脈히 흘러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祖上을 자랑스럽게 生覺하는 우리의 自負와 矜持는 결코 부질없이 排他的인 한낱 門閥에 對한 自慢이나 偏狹한 派閥意識의 發露가 아니라 宗門과 宗族이란 하나의 基本單位에 不過한 까닭에 祖上을 崇仰하고 敬慕하는 精誠이야말로 바로 民族魂을 일깨워주는 바탕이 되는 것이며、宗族間의 和睦과 團合은 곧 民族總和의 原動力으로 昇華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發展向上이냐냐가 祖國과 民族의 隆盛繁榮의 基礎가 된다는 事實을 銘心하여 우리 先祖들이 愛國愛族하고 滅私奉公해온 遺訓을 본받아 모든일에 犧牲과 奉仕精神으로 祖上의 業을 되살려 後孫들이 和

睦團結함이 大同譜를 刊行하는 참뜻이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刊行되는 辛酉大同譜는 우리로 하여금 先祖의 빛나는 業績을 欽慕하고 名門의 後裔로서 國家와 民族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옷깃을 여미고 反省하며 宗族間에 敦篤한 和睦을 바탕으로 國家民族의 榮光된 來日을 爲하여 一致團結과 奮發을 促求하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先代의 피와 얼 思想과 哲學 愛國心과 勇氣를 이어받고 精氣를 吸收하여 먼 後世代가 더욱 떨쳐 繁昌하고 隆盛하여 豐饒로운 祖國을 물려주기 爲하여 오늘에 사는 우리世代之 努力이 더욱 強調되어야 하겠읍니다.

歲月은 흘러 모든 것이 잊어져 가지만 祖上들의 남긴 말자취는 식지않고 따스한 입김과 實錄들이 용솟음 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國家民族이 處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 그것이 우리 先祖들이 겪어왔던 그때와 다를바가 없읍니다. 우리 先祖들이 섬기고 아끼면서 목숨을 바치던 이 땅 위에서 우리 後裔들은 오늘날도 보람된 삶을 營爲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和睦하고 團合하여 슬기롭고 勇敢하게 먼 훗날 우리 後孫들에게 까지 連脈 할 수 있도록 奮發하다면 우리 宗門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이 보다 더 할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今般 譜事에서 歷代 譜事時 밝히지 못하고 後孫으로서 悚懼스럽기만하던 貫祖 鏞進 精寶 鏡淑 壽까지의 世系를 밝혀주신 凡新羅 金氏宗務院諸位께 諸宗族의 이름으로 深甚한 謝意를 드리며 諸宗族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바입니다. 또 吾宗의 大多數의 宿願이었던 全國宗親

會가 譜事를 契機로 하여 組織을 보게 된 것을 慶祝드리며 今後 千秋萬代에 이르기까지 더욱 擴充되고 宗親事業의 隆昌과 和睦을 敦篤히 할 것을 祝願합니다。

끝으로 今此 大同譜續刊을 提議해주신 南原宗親諸位와 物心兩面으로 協助를 해주신 南寧族 親 및 發刊하기까지 淸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犧牲的으로 애써주신 譜所任員 여러분과 從事하신 宗親諸位께 諸宗親一同의 이름으로 感謝드립니다。 언젠가 在北韓宗親들과 함께 譜事를 議論할 날을 苦待하면서 祖上任의 恩德을 가슴에 새기며 序文에 가름합니다

西紀一九八一年八月

日

辛酉大同譜修譜委員會

委員長 三十二世孫 察訪公派 昞植識

前代書彥陽金氏丁亥譜序

樂樂其所自生禮不忘基本生人之道莫大於斯而其所以明統系辨久近收渙散敦親睦求進教禮樂之原者無過於正譜牒故馬班之叙傳歐蘇之纂譜盖自有所由受而夾際鄭漁仲著二十略於氏族最詳前人之譜牒一事其勤究而該述有關於世道如此余嘗謂家之有譜牒猶國之有史乘而其凡例則年表大事記之類也就其中若邾莒江黃瑣微無稱者或可以無史如魯若齊之有周公太公遺風餘韻而累百年文獻粲然可述者雖欲無史得乎近世簪紳之家家各有譜譜牒之修明於斯爲盛而彥陽金氏以羅麗大姓尙未有成譜謹按彥陽金新羅敬順王子鐸以麗太祖外孫受封彥陽是爲鼻祖勝國時以德望事業顯于世者有威烈公就礪貞烈公倫在我朝則文烈公千鎰壯武公浚贈承旨應祥竝以忠節著直提學汶以博學稱彙修通鑑綱目訓義左贊成權樹敵愾之勲副護軍宗胤有倡義之烈國史書之前賢表章之輝映千古不可終泯若是而可以無譜則魯齊亦可以無史矣護軍公之五世孫光鼎示余以其世譜六卷曰吾宗人參奉光錫慨然於譜牒之無傳積功裒粹未及入梓而歿其子學淵踵而成之今已始印子亦吾祖之彌甥盍爲弁卷之文余辭不獲謹以一言復之夫爲譜牒以詳系派者豈不以向所謂樂其所生不忘其本者耶苟如是則其必親親而尊祖敬宗而收族以盡仁義之則矣其必進德而修業立身而揚名以廣孝敬之道矣程先生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系世之論譜牒者孰不誦是訓而其所致心者不過條例之不差字畫之無譌而已烏在乎不忘本之實亦安用譜牒爲也今入於茲譜者誠能兢於斯義推原反始竭情盡慎母墜箕裘之業得免鐵爐之譏則古人所謂觀此譜孝悌之心油然而生者豈有既乎詩曰無念爾祖

聿修厥德又曰子子孫孫勿替引之尙其助之哉

崇禎三丁亥二月上澣

輔國崇祿大夫行判中

樞府事兼吏曹判書知經筵事弘文館提學世孫左賓客致仕奉朝賀 洪啓禧 謹書

丁亥譜跋

譜牒之昉古也若稽成周之制掌受姓有司商之官奠繫世有小史之職姓氏族世何與於邦國之治而聖王之教至今不泯則是一人之化成於一族也嗚呼祖而父父而子子而孫諸父分於祖兄弟分於父由再從三從以至於族子族孫係屬愈遠親愛益疏而推溯其源出於一祖血氣之分故凡人之性莫不愛類而相仁此周官所以設官建職如是其重且複乎吾金氏肇跡新羅逮于今幾二千年矣在羅爲君長在麗爲卿相洎于我朝簪紳相承世厥聲猷文學德望之人忠義節死之士代不乏人炳烺千古素號爲三韓聞族而第無譜牒之刊行者不佞先君子常慨然於斯歲在丙申留意哀輯編成三冊晚年屏居溪廣每以專心校讎爲事一日顧不肖輩曰吾積功斯譜思圖不朽而事與心違未克剗劂至恨尙在心矣汝能體吾意而續刊之則豈非幸歟小子伏以聽命而庚午先君子棄諸孤喪禍餘喘哀還震剝之中惟一念長懸懸於譜事而役鉅財綿萑苒未就將使先君子付托之意孤負莫遵則其以何辭歸拜先靈乎乙酉春兄弟相對語及此事不覺含淚悲咽於是始謀繡梓而丙申之於今殆至五十餘年矣子姓寔繁至有祖抱孫孫抱子者居多則遐鄉僻邑通諭而收單零源散派旁搜而系世衍成六冊財則鳩矣歲且再周工告訖矣於戲先君子遺志似若有待今日而成者斯不但不肖輩將瞑目無憾使遐苗遠裔一開卷而咸知昨穆之序次系派之分明尊祖敬宗之心油

然而生則吾宗於斯譜亦不無少補云爾

崇禎紀元後三丁亥五月下泮

後孫 景淵 拜手 謹跋

丙寅譜序

有族斯不可以無譜有譜斯不得不為之添修盖所以辨本支而審昭穆承前功而示來許也吾宗譜牒往在丙戌再從叔祇承先志始出刊譜於今為四十年矣存沒累變世代迭更不有以續修而添刊之則屬疏源遠將不能下別其支派之分行序之次其為欠闕將與初無譜牒者無別而我再從叔經始刊本之意果安在哉宗人墮甫自少慨然以宗中事自任今此修譜之舉亦其倡之也譜既成諸宗人以余年老而行尊俾余序其事余不敢辭而竊有所勉我宗人者盖一人而散而為千萬人而本之為一人苟無譜牒之溯其源而明其派則夫孰知千萬人之源於一人而幾何而不知為路人也哉此所以族必有譜而譜必添修者也凡我同譜之人尚監于茲各勉勉於收族之道敦宗之誼而永世勿替毋或至於忽忘焉可也

崇禎紀元後丙寅六月上泮

後孫通訓大夫前行利川府使 綱 采 謹識

壬寅譜序

崇禎紀元后四甲歲在壬寅即我 聖上踐祚之越明年也八域泰亨萬姓咸和于時吾宗譜所設於 壯武公齋室追遠感慕一宗所同而族之修譜族之誼也吾金系自彥陽干支近百餘世昭穆不億其麗則親盡而情盡情盡而路人勢固然矣自祖宗視之誠不慨然哉此丙戌丙寅譜之所以作而繼之以壬寅者也幸逢 聖明之世謹修敦睦之噫我諸宗各懷分派路人之歎永修體視祖宗之誼則古所謂觀吾譜而孝悌之心油

然而生者其在斯歟斯歟

青靈許修譜越翌年癸卯五月上澣

公齊定 癸酉譜序

粵惟吾宗譜牒之刊行於世今為七十年于茲矣世行愈遠子姓益繁考其時則重修可矣而在苒未舉積有

年所每以是憂歎於寤寐之際湖南宗人佐即澤烈首倡修譜之論嶠南宗人在聲繼有鳩財之方載始譜役

舉宗之幸孰大於斯乎在前丙寅譜繡梓時我王父有序文弁卷其辭曰有族不可以無譜有譜不得不添修

又曰凡我同譜之人各勉於收族敦宗之誼今茲譜事之就緒也諸宗以余年高而行尊屬之序文予何足自

任而念我王父昔時之序文其在繼述趾美之責亦不敢固辭然顧予小子何敢以別意贅加乎重以王考前

時之意申申加勉於今日同譜之宗云爾

宋人 崇禎紀元後癸酉七月上澣

後孫 持 華 謹識

季孫問曰百世之宗有絕道乎孔子曰繼之以姓義無絕也蓋為同姓義不當絕是乃後代姓譜之所由起而

明其無絕之義者也金之為氏出於新羅國姓而貫于鷄林之彥陽者自敬順王第六子為始發祥長而遠若

飀之綿綿逮夫麗朝將相繼出播厥聲猷輝映史冊漢都定鼎以來世襲簪組遂為東方甲乙之族重之以忠

義孝烈相望乎其間院而俎豆者二十六閭而棹楔者十四求諸異姓有如是者否嗚呼盛矣有族斯有譜譜

始於丁亥重修於丙寅續成於壬寅四刊於癸酉而迄今又為四十餘年之久焉子孫相與謀曰世代寢邈雲

仍益繁散而無紀將成陌路之人寧不大可懼哉其在繩武惇宗之道不敢不續修而添刊於是各鳩財力以營剗闕爲第五回修譜也夫上溯羅麗序其昭穆則豈非百世之宗歟廣收氏族及於疏遠則無乃絕之義歟信乎其不負聖人之訓矣役既竣謂寅學先祖相臣貞簡公委禽賢門寅學載在外裔要一言弁卷辭不獲略綴其槩是爲彥陽金氏族譜序

歲在丁巳季春上澣

資憲大夫前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東萊、鄭寅學謹序

丁巳譜序

惟我彥陽金修譜之役于茲五回矣其合源委之同異辨昭穆之遠近上以錄祖先之履歷下以聚後仍之繁衍敦百代之誼昭萬世之徵使覽者得以考某派之爲某祖之裔何人之爲何派之族而因以尚溯乎鼻祖之所自來者是固臚陳於往序不必加屋疊床第念吾金素是銀潢玉葉其源深其本厚自別氏於彥陽名公碩輔鴻儒巨匠代不乏絕蔚然爲東方右閥若威烈翼戴之文勳武勞貞烈游隱之卓識高義忠敬恭襄之豐功偉烈西軒龜巖之清操邃學肅川秋齋之清德貞忠文烈壯武清溪之貞忠大節龍巖倉村之至行純孝前後相望所以趾先美開後緒者極其磅礴渟滄矣宜其有充達衍溢於裔仍而挽近數百年寥寥寂寂絕無繩武睿韻者是豈不爲後承今日無限愧懼感慨之深也乎哉惟吾散居各域之族今幸聯繫於一譜中富其卷帙隨在珍藏雖際天地翻覆蒼桑浩劫可保其異日必無旻春桂快變換之慮後屬又免黃渥羅威失附之耻秦爐雖熱壁經甕簡猶得膾炙於後世矧此千億子孫各自寶而守之不翅若璧萊之重者乎惟是忠孝節義文學德業柱礎于家箕裘于世者獨不能傳續至今今既無有乎爾後將則亦無有乎爾而不免夫遙遙華胄之

譏于世吾祖宗亦其肯曰余有後乎凡我今日同譜僉宗英旣以講修尊祖敦族之懿誼而興孝悌之心又以先祖所爲者各自洗心發慮積于中而形於外或出而爲柱國之忠勲爲奠世之宰衡或處而爲錫類之孝友爲範俗之言行使忠臣孝子清白節義之名復得流灌充滿於吾金之門而繼前裕後則今日之譜實爲吾彥陽氏一脉陽氣之復也若夫徒襲叔季浩譜之謬規不念聿修厥德無忝爾祖之往訓又踵前日塗人相視之涼涼則大非今日重譜之深意也不佞以老昏蔑識猥忝首司誠極汗顏亦不可無一言於茲故略序之

歲在丁巳三月上澣

后孫 甲哲 謹識

丁巳譜跋

夫家之有譜猶國之有史也國而無史則不能鑑治亂得失也家而無譜則不能考派係昭穆矣故韓昌黎之譜序蘇老泉之譜跋皆莫不重疊是義也是以我東名門巨族莫不有譜究其同根而尋其同源之義也且重刊而莫不畢載上之祖宗下之係派遠近族親內外姻婭者生乎百代之後千里之遠欲備考昭詳者也家之有譜譜之重刊之義豈不大且重歟惟我金氏自太輔公以後王公將相鴻儒碩士相繼輩出而德業名節爲東方之巨族矣然苟無譜牒則豈能詳知尊祖敬宗之誼安在乎且夫吾金修譜今已彌久矣捨此不修則族誼難尋先志難繼而使與無譜同故族人洛鉉與哲相慨然有重刊譜牒之意而余亦叅一者故詢謀于僉宗而鳩首凝財經營者爲十朔之久而今將告成吾族幸莫大乎是也且威烈公墓所失傳者久矣於庚戌年分墓賊發掘之時誌石露出故余與故天安族侄華榮三從孫在杰同爲奉審然春秋香火之資立石表誌之役彌今不能矣因大同譜順成之際而兼營此事立石而失傳之先塋重護賣土以久闕之香火復續惟吾金門之慶幸者孰過於此乎今日修譜之舉實是守護失傳先塋之秋也願我同譜之人縱有枝列派分而親疎遠

近之不同然均是同祖之子孫則尊祖敬宗之誼永爲不替而勉旃也夫

丁巳仲夏下澣

后孫 柱 升 謹跋

丁酉譜序

孔子曰方以類聚物以群分吉凶生焉凡天下許多事物莫不從那裏出來者也蓋人固物之靈而祖又生人之始也故有祖斯有族有族斯有譜族之群分譜之類聚莫非是理而氏族之分者不復聚焉則懼其相失而不記焉其能不至失群離類者吉也善也反是則凶也不善也世有吉人同世而作發大同之議並大同之力著大同之書自吾所自出推及人之所自出雖親盡服盡情盡者猶不爲路人之疏遠矣然則老蘇之纔至高祖者果非太簡者也歟竊惟金氏出彥陽君諱鐸即敬順王第七子也侯王子羅公卿于麗簪纓于本朝孝友德行忠節文章軒輊前後磊落相望遂爲青邱名族嗚呼盛哉金氏大同譜將成今其後孫貴進受其諸族之議遠來徵序余方病徂幾隕神精喪漠辭不獲已乃復之曰金氏不以四世爲限特以遠蒐同貫爲務以成大同譜之法可謂廣矣於是昭穆井井派系秩秩遠近親疏一開卷而瞭如指掌矣其功不亦大乎哉夫溯而上之由千萬而本一人降而歧之自一人而至千萬則豈可以路人相視哉是故程夫子曰管攝天下人心使厚風俗不忘本須是明譜系張子曰忠義之立知其來處凡同是譜者知吾身一源之出而尊敬其祖念同宗百代之誼而敦睦其族課忠責孝尚義守禮以繩先矩以貽後孫則是役也奚但爲金氏一門之私抑將爲天下人心管攝之權與矣於大同之義庶不負云爾

丁酉八月仲秋上澣

完山 崔秉心 序

丁酉譜跋

與我同籍姓而無服則是族族則親盡而渙散於覆載之間移北者生老於北移南者生老於南漠然不知萬有之數本於一太極之理而叙倫講睦篤於一隅修譜明系止於一派以一祖之孫不知宗支昭穆則是同路人也己矣此大同譜之所以起也所以續刊也詩云孝友于兄弟以御于家邦家國之政不外於孝悌慈而明宗支辨系統定名分講昭穆雖是修譜之大義非孝悌慈莫能御也孔子曰有物必有則朱子曰天下無性外之物但知宗支昭穆等事而於理之所以然上做不得則是有物而無則無性也夫理凝而形作事皆爲然而今修譜物也形也不知所以修之之理在何着則譜失裡面立脚而不至顛沛者無其譜矣程子曰收宗族厚風俗須是明譜系蘇子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此豈非聖賢同揆一理耶今吾宗修譜大同及派修凡八九次而所謂大同者未及全族所謂派修者不止一派此皆其時與勢之不宜也然而上述祖先下垂來仍其初則孝友積而發華也修而示續續而又示修孝友發而無窮也猗歟吾金自新羅敬順王第七子彥陽君諱鏞始得籍而入麗爲將相忠賢逮我朝卓節忠勲碩輔巨儒相望朝野蔚然是東方右閥也噫挽近以下來者不暢達何天不佑奈然孔子於季孫問曰繼之姓義無絕也觀於諸姓或隆或替雖不及大隆亦不至埋歿而見今日則吾宗亦百世繼姓之宗也此莫非先父祖積德垂訓之致則今日之示後百世者不在於今日耶詩曰聿修厥德無忝爾所生易曰同人于宗同而善之則其利斷金其臭如蘭不在於爾我哉有時而學顏淵之學有時而志伊尹之志一身修而九族叙九族叙而萬殊之宗和矣余於彥修續譜之日自有所感者族侄貴進以秋齋公會孫山堂公長男諱澗號汎齋康津宗派之裔高祖以上居康津也以名門望族行誼擬境隆替有數移居殊鄉受克積餘至于皇考始承先趾當於自身先趾倍美際於是役以掌財之任一無少懈讚

而美之以一言續於筆末以示來者之參是役者云爾

歲丁酉 月 日

後孫 奎 炫 謹跋

跋

丁亥譜(始譜二百十五年前) 以來로 至今 辛酉譜가 七回째로 大同修譜를 하였는바 始終 諸族의 積極的인 協助와 呼應에 깊히 感銘하는 바이며 이 現象은 吾宗門의 隆昌하는 來日을 期約해 주는 瑞兆라고 生覺된다.

修譜事가 每 三十年마다 하는 것을 通例로 하는데 이번 譜事가 당기여 施行하게 됨은 威烈公墓所 問題로 同族間에 若干의 異見이 있어 이를 調整하는데 對話의 機會를 갖고져 함이 였고 그리하여 威烈公墓所는 彥陽 江華 兩處를 다 守護하기로 議決하여 門論을 統一하였고 丁亥譜를 爲始하여 丙寅、壬寅、癸酉、丁巳、丁酉譜까지 거듭 修譜하였으나 밝히지 못한 貫始祖 彥陽君 鑄부터 校尉公 壽까지의 系代를 이번에는 期於코 밝히려 在 京宗親會를 비롯하여 諸族의 熱熱한 要望에 따라 國立圖書館 歷史編纂委員會等 各方으로 探究하다가 凡新羅金氏 宗務院의 周旋으로 同源傍系 慶州金氏 益和金氏等の 譜牒에 鑄—進—精寶—鏡—淑—壽로 昭載되어 있음을 發見하여 至今까지 未詳하였든 四世祖 鏡淑을 奉審케 되어 欣然히 擴大會議(修譜委員會 外地方代表)를 召集하여 鄭重히 議決를 보아 譜例를 輒改하고 이제 겨우 貫始祖 彥陽君 鑄을 一世로 始叙하여 先系昭穆을 瞭然하게 밝히게 됨은 實로 舉族的인 快事라 아니 할

수 없다. 또 本會議에서 貫始祖 彥陽君 鎰을 設壇奉享하기로 滿場一致 可決하였으며 우리
 리의 오랜 宿願인 全國宗親會를 結成하였으니 이 또한 慶事라 하겠다. 비읍진대 華麗한 繁
 昌以前에 모처럼의 宿願이 무너지는 陋가 없도록 全宗族의 信賴와 歡呼속에 永遠히 發展
 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行狀文(功蹟文)은 大會에서 舊譜 新單 모두 審査하여 登載도록
 議決하였음으로 全宗中에서 經綸이 밝으신 분들로 構成한 審査委員會에서 撰拔基準을 定하
 여 修譜委員會 委員長團에 委任하였음으로 委員長團에서 이를 拔萃하여 收錄하였고 翻譯
 文을 添附하여 누구라도 解得할 수 있도록 하였다. 前
 前述한바와 같이 吾宗門으로서는 굵은 일들을 遂行處理하였으나 任司者의 無能과 每事에는
 依例히 따르는 時間과 經營의 制限에 쫓기여 未洽한 欠缺을 남기게됨이 못내 아쉽기만 하
 면서 世上跋涉의 어려움은 새삼 痛感하는 바이다.

大體로 修譜事가 先祖를 敬慕하고 同族間의 敦睦이 目的인바 우리 모두 이 機會에 깊이 되
 새겨 보아야 하겠으니 新羅時代에 王으로 三十八代요 高麗 李祖時代에는 道學、忠孝、節
 義、將相、碩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시니 盡錄하지 못함이 可惜하나 그 어지신 先祖님들
 이 한결같이 榮達을 貪하지 않고 國家가 外侵을 當할때면 憤然히 일어나 先鋒에 서서 防
 禦하시다가 壯烈한 最後를 마치신 그 崇高한 精神과 氣像을 忘却하고 있지 않은지 同族間
 의 和睦은 서로가 自制 自重하고 謙遜과 忍耐로써만 이루어 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지

먼저 反省해 볼일이며 二千年의 悠久한 氏族史를 가진 可謂 東方의 華族이 그 衿持를 구쳐
서는 아니될 일아니 우리 모두 誠實하게 精進하여 先祖님이 남기신 德業을 본받아 一族의
隆盛이 이 民族의 繁榮으로 昇華시켜야 하겠다.

이번 修譜事를 運營하는데 多少異見이 不無하였으나 사람마다 容貌가 다르듯이 思考하는
尺度도 저마다 다를것이므로 會坐하면 異論이 있음이 當然한 일이 어니와 理는 하나이므로
저마다 理로 좇았던들 目的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異論이 있을 까닭이 없는 데도 잘해보려는
強한 意欲과 熱氣가 앞질러 빚여진 몇가지 말썽은 다른 次元에서 보면 至誠이 넘쳤다고 할
수있으니 多幸한 일이며 이토록 서로 잘해 보려는 至誠이 마치 來日 무엇인가를 誕生할려
는 前夜같기도하다

끝으로 이번 譜事를 遂行하는데 誠意를 다해주신 諸族에게 衷心으로 感謝하는 바이다.

一九八一年八月 日

新羅金氏王世系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金闕智

김알지

始祖大王 (시조대왕) (추존)

子勢漢

세한

舊

子阿道

아도

신라 제五代婆娑王

子首留

수류

신라 제六代祗摩王

子郁甫

우부

신라 제七대 일성왕

子仇道

구도

일회 俱道 (구도)

子味鄒王

미초

五九六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新羅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大輔公 (대보공)

諱

辛亥

丙寅

角干

阿達羅王

一七二

一八五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彦陽金氏族譜卷之一